



from
Japan Automotive Recyclers Alliance
www.jara.co.jp

Published by JARA Corporation
Tokyo Head Office: Shinawa Bldg. 1-2-2-7F,
Nihonbashi, Chuo-ku, Tokyo JAPAN 103-0027
Phone: +81 3 3548 3010 / Fax: +81 3 3231 4690



JARA, 서일본 호우 피해 지역을 지원

최근, 주식회사 JARA(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사장)는, 7월에 발생한 서일본 호우 피해 지역에서 피해 차량의 견인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회원 기업의 협력하에 총 약 170명으로 3주간이라는 기간에 이루어져, 완료될 전망이 예측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피해 상황이 발생한 직후, JARA 그룹의 도몬 유키요시(土門 志吉) 회장을 본 부장으로 한 재해 대책 본부를 즉시 마련하여, 피해 상황이 심각한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마비초(岡山県 倉敷市 真備町)와 히로시마현(広島県)의 동부 지역, 근교 하천의 붕괴에 따른 피해 차량의 견인 대응을 결정했다. 양자는 현지에 가서, 차량의 보관장소가 될 야드를 마비초 북쪽에 확보하여, 인근 지역에 회원 기업과 연계하며 견인을 시작하였다.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다는 것과 더불어 피해지역의 교통망도 순조롭지 못하여, 처음에는 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장에 와 준 전국의 회원 기업 중에는 동일본대지진 발생 시에 자동차 견인 활동에 힘써 주신 경험을 가진 분들도 많았으며, 사고나 부상 등도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피해 상황에서 대형 손해 보험 회사와의 정보 공유·연계에서 큰 도움이 된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채택된 스마트 폰용 전용 화상 채팅 앱이다. 피해 상황의 조사에서는, 보관 야드에서 손해 보험 회사에 있는 어저스터에 영상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피해 조사가 가능해졌다.

(JARA홍보부)

JARA그룹, 프런트맨 스텝1 연수회를 개최

최근, JARA 그룹(도몬 유키요시(土門 志吉) 회장)은, 시즈오카현 스소노시(静岡県 裾野市)에 있는 아이오이닛세이도와 자동차연구소 히가지후지센터(あいおいニッセイ 同和自動車研究所 東富士センター)에서 ‘2018 JARA 프런트맨 스텝1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는, 재활용 부품의 프런트 업무와 판금 도장(BP) 작업의 연수 등을 통해, 프런트맨으로서의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3일간 열린 연수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판금 도장(BP) 체험 세미나’를 커리큘럼에 포함하였다. 외판 패널의 상처나 함몰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작업 공정을 거쳐 복구되어 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사용 후 자동차로부터 재활용 부품 생산과 고객에 대한 제안력 향상으로 반영시켜 간다.

BP 세미나는, 도어 패널의 함몰 보수 작업을 하였다. 동 연구소의 강사가 작업 내용의 해설을 한 후, 참가자 전원이 보수 부분의 도막 박리, 함몰 부분의 복구 작업, 퍼티 넣는 작업과 매끄럽게 하는 작업, 프라이머 서페이서 도장까지의 보수 작업을 직접 해 보았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차체 정비 사업자의 시점에서 재활용 부품에 대한 강의를 듣는 등, 재활용 부품의 활용 촉진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었다. 참가자는 “판금 도장 작업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흠이나 보수해야 할 부분의 상태에 따른 제안을 해 보고 싶다.” 라는 등 여러 의견을 말했다.

차체 정비 사업자는, BP 작업에서 재활용 부품의 외판 패널을 사용할 때, 흠집



이나 함몰이 있어도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다. JARA에서는, 차체 정비 사업자에게 정확한 형상 설명을 하는 등, 재활용 부품의 활용 촉진으로 이어간다.
(일간 자동차신문 8월 16일)

아시아자동차환경포럼을 가을에 인도에서 개최 참가 등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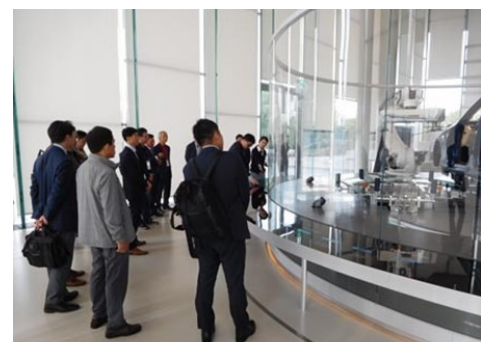
제11회 아시아자동차환경포럼(AAEF)이 10월 31일 ~ 11월 2일까지 3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 현재, 아시아자동차환경포럼 일본위원회(劉庭秀(유 정수, (YU, Jeongsoo) 위원장)는, NPO 법인 전일본 자동차리사이클사업연합(JARA, 다카하시 사토시(高橋 敏) 이사장)을 창구로 참가의 접수, 문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포럼은 2008년 한국·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아시아 각국의 자동차 리사이클러나 행정 기관, 학술 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회의에서, 자동차의 환경 문제와 재활용 산업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1 회째를 맞이하는 올해의 테마는 ‘AUTOMOTIVE RECYCLING IN INDIA PATHWAY TO THE FUTURE -TOWARD SUSTAINABLE SOCIETY-’.

투어에서는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 인도의 재활용 시장의 시찰도 한다. 이번 개최국인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스크랩 수입국. 아시아 국가에서 사용 후 자동차(ELV)의 스크랩을 포함한 다량의 스크랩을 수입하고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8월 16일)



AAEF2017의 모습



부적절한 수리와 사고 피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었다(사진은 이미지)

부적절한 수리에 배상금 35억 엔, 일본의 차체 정비 업계도 요주의

자동차 수리를 둘러싼 미국에서의 배상 명령이 일본의 차체 정비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 지붕 수리에 업체가 지정한 용접이 아닌 접착제를 사용한 결과, 충돌 사고 시에 화재가 발생하여, 탑승자가 중상을 입었다고 해서, 차체 정비 공장 측에 3150만 달러(약 34억 8천만 엔)의 배상 명령이 나온 것이다. 일본에서는 미국과 같은 거액의 배상 명령이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업체

가 지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강 건너 불구경과 같이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 건의 발단이 된 사고는 2013년 가을에 미국에서 일어났다. 혼다 ‘피트’와 토요타 자동차의 픽업트럭인 ‘툰드라’가 충돌. 피트는 파손된 후 불에 휩쓸렸으며,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내에 갇혀 큰 화상을 입었다.

피트는 중고차로 구매한 것으로, 이전 소유자가 우박의 피해를 보아, 자동차의 지붕을 교체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혼다가 지정하는 스폿 용접이 아닌 접착제로 교체한 지붕이 고

정되어 있었다. 또한, 피트 소유자가 계약한 보험 회사가 차체 정비 공장에 대해, 수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접착제의 사용을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는 “(보험 회사는)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하도록 수리 공장에 강요했다.”라고 말했다.

차체 정비 공장은 “(접착제에 의한) 패널 접합 방법은 (용접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리 공장은 혼다의 엔지니어보다 앞서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업체 지정의 수리 절차를 준수하는 ‘I-CAR’의 인증 공장이기도 하며, 업체가 요구하는 용접을 하지 않은 것에는 변함이 없다. 결과적으로 배심원단은 지난가을, 부적절한 수리와 탑승자 피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여, 차체 정비 공장에 배상금 지급의 판결을 내렸다.

30억 엔이 넘는 배상금에는, 미국에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 배상 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정신적인 손해를 위자료로 법원이 산정하는 일본에서는 이만큼 거액의 배상 명령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단, 수리 난도가 높은 초고장력 강판의 채택이 확산되면서 선진 안전 기술의 에이밍(aiming, 기능 조정) 작업도 요구되는 현재, 정비 및 판금 도장 공장은 제조사가 지정하는 공구와 수리 절차를 준수하며, 작업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뜻밖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8월 24일)

해체 등록 사업소의 감소가 이어짐, 10년에 1천 사업소 이상

자동차 재활용에서 해체 공정을 담당하는 등록사업소 수가 지난 10년 동안 1천 사업소 이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3.7%가 감소한 4933사업소이며, 2008년도와 비교하면 1674사업소가 감소했다. 등록사업소 가운데 해당 연도에 이동보고를 한 사업소인 가동사업소도 비슷한 수치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용 후 자동차(ELV)의 발생 감소와 자원 가격의 상하 변동, 후계자 난 등 해체 사업자를 둘러싼 경영 환경의 어려움이 두드러지었다.

ELV의 해체 처리를 하는 등록사업소는 해마다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이라는 기간에 피크였던 시기는 2008년도의 6607사업소. 이후, 점차 감소 추세로, 2014년도에는 5917사업소로 6천 사업소의 유지가 어려워졌으며, 2017년도에는 단번에 5천 사업소를 밑돌게 되었다.

한편, 등록사업소가 차지하는 가동사업소의 비율은 높아졌다. 지난 몇 년은 65% 전후로 추이 되어 왔지만, 2017년도에는 71.5%로 상승. 2010 년도 이후 7년 만에 70%대를 회복했다.

등록사업소의 총수가 감소하는 한편, 1사업소 당 인수 보고 건수를 분석하면, 처리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해졌다. 2017년도의 인수 보고 건수가 소규모인 ‘1~10’은 17사업소가 감소, ‘11~100’은 106사업소가 감소했지만, 반대로 ‘101~1천’ ‘1001~1만’은 16사업소가 증가, ‘1만 1~’도 4사업소가 증가했다.

해체업자로 등록된 업종에는 ‘해체/파쇄 등’ 외, ‘신차 판매’ ‘중고차 판매’ ‘자동차 정비’가 있다. 해체/파쇄 등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7년도의 등록사업소 수는 2008년

대비 956사업소가 감소한 3892사업소였다. 또한, 가동사업소는 동 916사업소가 적은 3161사업소가 되었다.

(일간 자동차신문 8월 23일)

C02 삭감 수치 (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02 삭감 효과 참고치
2018년7월

2,547 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의 차이가 C0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Asian Automotive Environmental Forum

11th in India

From Wed. 31st October to Fri. 2nd November 2018



Conference theme:
AUTOMOTIVE RECYCLING IN INDIA
PATHWAY TO THE FUTURE
– TOWARD SUSTAINABLE SOCIETY –

Holiday Inn New Delhi International Airport

Registration Fee : US\$200 per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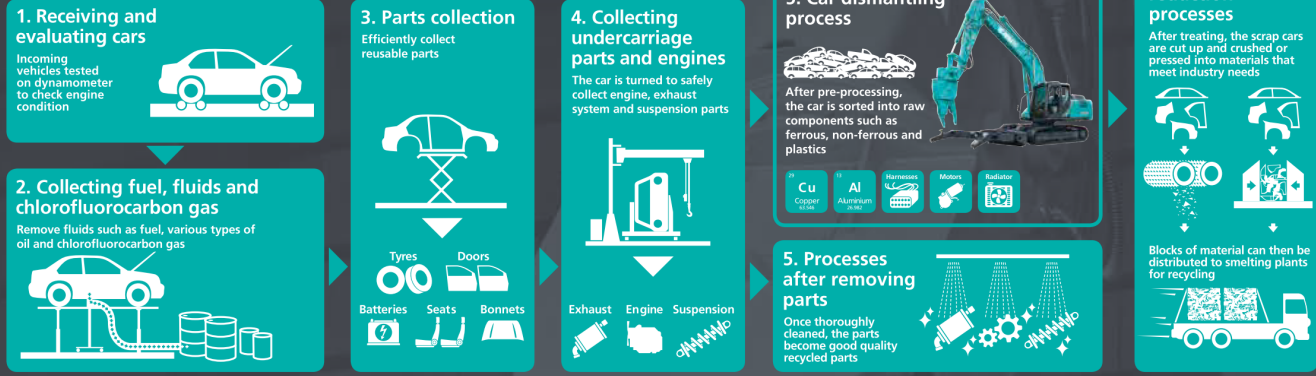


Contact : jara@npo-jara.org(Japan Automotive Recyclers Association)



Dismantling process flow chart

How the Car Dismantling machine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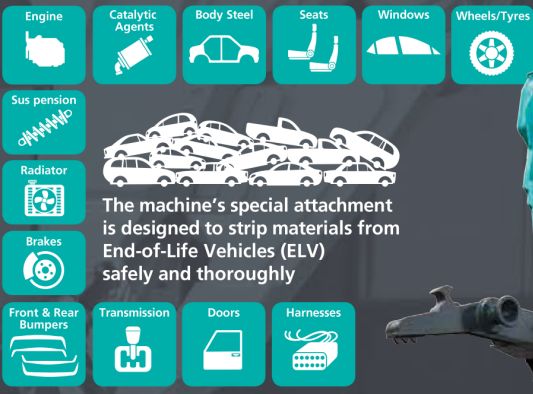
The Evolution of car dismantling industry by Kobelco

Four times* the vehicle dismantling capability compared with hand dismantling.

* In one day (Kobelco test figures)

15 vehicles >
One operative working by 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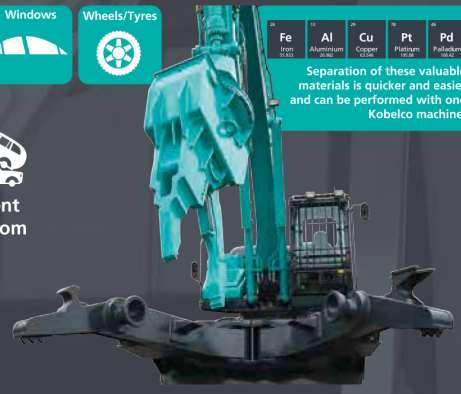
60 vehicles >
One operative in a Kobelco Car Dismantling machine.



Improved recovery rate of rare earth metals

Fe Iron	Al Aluminum	Cu Copper	Pt Platinum	Pd Palladium
------------	----------------	--------------	----------------	-----------------

Separation of these valuable materials is quicker and easier and can be performed with one Kobelco machine.



コベルコ建機株式会社 www.kobelco-kenki.co.jp/	For Japan	成都神鋼工程机械(集团)有限公司 www.kobelco-jianji.com/	For China
(주)삼정건설기계 www.samjung-kenki.co.kr/	For Kore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www.kobelco-usa.com/	For North Americ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AUSTRALIA PTY LTD www.kobelco.com.au/	For Australi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www.kobelco-europe.com/	For Europe
FAIR FRIEND ENTERPRISE CO.,LTD. www.ffg-tw.com/	For Taiwan		